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12월 8일(일) 제1519호



사진은 지난해 '사랑애나눔'.

“복음과 사랑을 선물합니다!”

대학청년부 '2024 겨울 사역' 시작 ... 청년 2,300여 명 참여 12월 7일부터 '2024 사랑애나눔', 20일부터 '크리스마스 블레싱'

도움이 필요한 지역 교회와 기관, 이웃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선물하는 2024 대학청년부 겨울사역이 시작됐다. 12월 7일부터 '사랑애나눔'과 12월 20일부터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 2,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랑애나눔은 지역 교회 및 기관과 함께 불우이웃,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에 식료품 등을 전달하는 사역이다. 연약한 이웃들이 따뜻

한 겨울을 보내도록 돕는 사역이다. 온누리교회 이름 대신 지역 교회와 기관 이름으로 선물을 전달한다.

올해 사랑애나눔은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지역 교회와 기관을 방문해서 이웃 1,185가구에 쌀과 김치, 햇반 등을 전달한다.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 955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Pole2청년부 작은자교회, 하늘대학부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요셉청년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허브대학부 중앙사회복지관과 신앙장로교회, SNS청년부 수서명화복지관과 산마루교회, 갈렙청년부 종로종합사회복지관, W청년부 나섬교회, 여호수아청년부 교남주민센터, J4U청년부 공릉동종합사회복지관, 길청년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CHPLUS청년부 등대교회에서 사역한다.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지역 교회를 방문해서 성탄절 예배, 이웃 초청잔치, 마을 전도, 어린이 사역 등을 하면서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역이다. 올해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화계제일교회, 해금강교회, 한숲농아인

교회, 황산교회, 당포교회, 낭도구포교회, 하서제일교회 등 23개 지역 교회에서 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 1,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요셉청년부 3개 지역 교회와 포천하랑센터, W청년부 3개 지역 교회, 길청년부 2개 지역 교회, 여호수아청년부 19개 지역 교회와 2개 M센터, 갈렙청년부 지역 교회 및 이주민 지원 기관, J4U청년부 10개 지역 교회, SNS청년부 40개 지역 교회, Pole2청년부 2개 지역 교회, 허브대학부 18개 지역 교회, 하늘대학부 13개 지역 교회를 섬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4 엔젤트리 사연 84% 매칭

아직 이웃들의 사연 804건 연결 미완료

2024 엔젤트리에는 사연 4,944건이 접수됐고, 4,140건(84%)이 매칭됐다. 아직 이웃들의 사연 804건이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12월 4일 기준). 서빙고온누리교회는 매칭이 완료됐다. 2024 엔젤트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엔젤트리 대상자가 크리스마스 전에 선물을 받아보도록 배송을 서둘러야 한다. 국내 온누리교회 로비에 설치된 엔젤트리 데스크에서 사연을 뽑고, 사연 속 주인공을 위해 기도하고, 선물을 보내면 된다. 엔젤트리 사연이 연결되면 본부에서 개인 연락처로 이웃의 이름과 주소를 전달한다. 선물은 5만 원 이하여야 한다.

/ 홍하영 기자

연말 최고의 선물 '예수'

12월 14일 탁구인 맞춤형전도집회, 연말까지 모든 순에서 '열린순예배'

온누리교회가 연말 최고의 선물 '예수'를 전하기 위해 전도 행사를 이어간다. 12월 14일 탁구인 맞춤형전도집회 '핑퐁 in Love'가 열리고, 연말까지 온누리교회 모든 순에서 '열린순예배'를 드린다. 2024 탁구인 맞춤형전도집회 '핑퐁 in Love'는 12월 14일(토) 오후 2시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지하 1층)에서 열린다. 탁구대회, 식사, 설교, 토크쇼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가 설교하고, 양영자 선교사(88년 서울올림픽 탁구복식 금메달리스트, 전 청소년 탁구 국가대표 감독), 가수 이무승, 색소폰 연주가 심삼종, 가수 하다쉬 뮤직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양영자 선교사와 안재형 이사(대한탁구협회)가 토크쇼도 진행한다.

열린순예배는 연말까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주제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모든 순에서 열린순예배를 기획하고, 실행하면 된다. 열린순예배에는 여러 사정으로 순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나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전도대상자(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를 초대하면 된다. '열린순예배 (가이드북)'을 QR 코드로 다운받을 수 있다. 문의: 010-3772-3686(탁구인 맞춤형전도집회)



차세대 '2025 교사사명교육'

12월 5일부터 매주 목, 토요일 온라인

차세대사역본부에서 '2025 교사사명교육'을 목요일과 토요일을 나눠서 실시한다. 2025년 신입 차세대 교사가 대상이다. 교사사명교육 목요일반은 12월 5일부터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 토요일반은 12월 7일부터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한다. 사랑부 교사교육은 장애인사역본부에서 별도로 한다.

한편 안산 온누리M센터에서도 차세대 교사를 모집한다. 예수님의꿈아이 2명, 꿈이자라는땅 2명, 파워웨이브 2명을 모집한다. 온누리M센터 차세대 교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전화(010-5858-4371)로 문의하면 된다.

/ 홍하영 기자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세상의 어떤 사람도 예고되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은 오랜 역사 속에 예언된 출생입니다. 예수님만이 역사 속에 많은 예언을 통해 오래전부터 준비된 출생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오래전부터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분의 출생을 준비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 이르러서는 매우 분명하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가장 풍부하고 영광스러웠던 지역이 앗시리아에 의해 큰 피해를 입고, 짓밟히고,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 시대에 예수님의 오심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 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1~2절).

가장 어두운 역사적 상황에서 가장 밝고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언,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은 여러 시대, 여러 상황에서 주어졌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희망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간의 타락 직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사단의 머리를 부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예언부터 모든 상황이 가장 절망적인 시대에 희망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어둠이 사라지고, 모욕을 당한 땅이 영광스럽게 되고,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가장 큰 모욕을 당한 갈릴리 땅을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

하시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가장 많은 사역을 한 지역이 갈릴리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최후의 일주일을 보내시는 여정이었을 뿐입니다. 잠시 방문한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탄, 죽음의 땅에 생명이 임한 사건

<이사야> 9장에서 말씀하신 스블론과 납달리 땅, 요단 강 건너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라고 일컫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통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큰 모욕을 당한 갈릴리 지역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게만 큰 빛을 비추주시는 것일까요? 갈릴리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들을 보십시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둠 속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어둠 속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그림자의 드리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성탄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임하고, 모욕의 땅에 영광이 임하고, 죽음의 땅에 생명이 임한 사건입니다. 어둠에 임한 빛과 함께 더불어 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큰 빛이 임했을 때 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어둠과 고통, 절망에 빛을 비추고
기쁨을 가져다줄 한 아이가 태어났다”

밝은 빛, 큰 빛과 더불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큰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빛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기에 거룩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설명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추수할 때의 기쁨’과 ‘전쟁에서 승리하며 전리품을 나눌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3절). 하나는 농부가 누리는 기쁨이고, 또 하나는 군사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주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고난과 희생으로 얻은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영적 추수를 바라보며 고난 받으

여호와와의 열정

이사야 9:1~7

“예수님은 한 아이로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아버지요, 평화의 왕위를 가지신 경이로운 분입니다.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통치자로 그분의 나라를 이끌고 계십니다.”

시는 수고와 영적 승리를 바라보며 십자가로 사단과 싸워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나눠 주셨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6절).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고통과 어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추수의 기쁨과 승리의 기쁨이 올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입니다. 그 아이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아이요, 어두운 세상에 기쁨을 주는 아이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태어난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동시에 한 아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완료된 것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예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정말 확실한 일을 설명할 때 이루어진 것으로, 완료된 것으로 시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어둠과 고통과 절망에 빛을 비추고 기쁨을 가져다줄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가 보여 주신 겸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아기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겪는 고통마저 담당하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출생 때부터 상처받고 고통 받는 영혼을 구속하시는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이의 네 가지 이름

6절을 보면 이 아이의 이름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 모사입니다. 두 단어를 분리하기도 하고, 한 단어로 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놀라움’, ‘경이’, ‘기적적인’ 의미를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슬러(wonderful counselor)’라고 합니다. 그분은 가장 경이로운 지혜를 가지셨고, 놀라운 안내자이시고, 상담자이시고, 인도자입니다. 그분은 아이로 세상에 오셨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겪는 모든 고통에 대하여 안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근원이신 그분이 만물의 일부가 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 함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두려워할 때 영원하신 아버지가 돌봄과 보호자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 이름은 ‘평화의 왕’입니다.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통치하심은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것입니다(7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공평과 정의로 통치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죄인이었기에 온전한 공평과 정의의 통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한 아이는 공평과 정의로 온전히 통치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힘으로 연약한 이들을 지배하고 학대했던 나라들은 붕괴했습니다. 그러나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그분의 통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근원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 분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 중간에 기묘자, 모사가 되십니다. 놀랍고 경이로운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 아이로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아버지요, 평화의 왕위를 가지고 계신 놀랍고 경이로운 분입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로 그분의 나라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정으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 오심을 예언하셨고, 그 열정으로 그분이 오시도록 역사하셨고, 그 열정으로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뤄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나라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때로 쇠퇴할지 모르지만, 그분의 나라는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은 여호와와의 열정이 이루신 그분의 나라가 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나라, 그분의 통치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뻐하면서 성탄을 맞이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영역주권과 일반은총(8)

굿 워즈(Good Words) 헌팅 : 언어 영역의 거룩한 주권을 위하여

맷 데이먼과 로빈 윌리엄스가 출연한 ‘굿 윌 헌팅(Good Will Hunting)’이라는 영화는 불우한 어린 시절 상처로 인해서 반항적 문제아로 성장한 윌 헌팅과 그를 치료하는 심리치료 교수인 셉 맥과이어에 대한 감동적 이야기다. 이 영화의 백미는 열 번이나 반복되는 “그건 (어린 시절의 마음의 상처) 너의 잘못이 아니야(It's not your fault)”라는 진실하고 단호한 셉의 말에 윌의 마음속 깊은 상처가 치료되는 약 3분에 걸친 대화 장면 아닐까 싶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지만, 셉의 거듭되는 이 한마디에 윌은 결국 분노와 폭력적 감정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이 말이 아홉 번째에 이르자 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셉의 품에 안겨 흐느끼기 시작한다. 품에 안겨 통곡하며 울고 있는 윌을 보듬으며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제 다 잊어버려”라는 셉의 말로 이 장면이 마무리된다. 언어의 한 형태인 말의 반복이 주는 강력한 힘과 영향력이다. 이 장면을 보다 보면 세 번 배신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라는 진지한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성경은 말의 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잠 18:21).

그런데 언어의 한 형태인 ‘단어’에는 매체에서 주는 교묘한 속임수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한 예로 ‘진화(evolution)’라는 단어가 대중적으로 다가가는 모양새는 원래 자연과학에서의 ‘진화’가 의미하는 바와 매우 대

조적이다. 대중매체에서 긍정적 느낌의 가면을 쓰고 있는 ‘진화’라는 단어의 힘은 자연과학적 ‘진화론’에서의 ‘진화’의 의미를 일반인들이 비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왜곡할 수 있다. 여러 매체의 기사 제목에서 그 예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호랑이 스윙의 진화’, ‘계속 진화하는 스타! 왜?’, ‘끊임없이 진화하는 뮤지컬의 힘’ 등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에서의 진화의 의미는 각각 ‘철저한 관찰과 적용으로 만든 기계적 골프스윙의 변화’, ‘각각의 노력과 이성적 판단의 결과로 인한 연기력 향상’, ‘이성적 분석으로 배역과 분장으로 발전된 뮤지컬’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기사들을 읽은 사람들이 ‘진화’라는 단어에서 떠오르게 되는 이중적 고정관념(stereotype)은 첫째, ‘이성적’이며, ‘합리적’일뿐 아니라 둘째, 인류 공영에 필요한 발전과 개선이며, 확장성이다.

그러나 실제 생물학적 진화론에서의 ‘진화’는 매체에서 의도하는 이성적 활동이 아니다. 철저히 ‘저절로’와 ‘비이성적 설계’의 개념을 ‘과학’이라는 상자에 담은 것이다. 그런데도 매체에서 부연한 진화에 대한 두 번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별생각 없이 진화를 매우 쉽고 편하게 받아들인다. 여기에 깊은 진실의 왜곡이 존재하는 것이다.

C.S. Lewis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지옥의 악마 우두머리인 스크루테이프가 그 조카 악마인 윈우드에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31통의 편지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는 사람들의 지성과 논증을 그들의 목적(지옥

으로 보내는 것)을 방해하는 중요 요인으로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윈우드에게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환자(이 경우 기독교인)를 교회에서 멀리 떼어 놓기에 가장 좋은 협력자는 논증이 아니라 전문 용어란 말이다.”

C.S. 루이스에 의하면, 여기서 전문 용어란 과장되고 피상적인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대중적 용어를 말하고, 바로 앞서 이야기한 ‘진화’와 같은 단어로 생각할 수 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논증’이란 어떤 판단이 참이란 것의 이유를 부여하거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의 문화 매체는 기독교인의 건전한 논증과 판단을 유보하거나 흐리게 하는 언어의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중간 지대는 사실 비진리와 마찬가지로. 진리에 비진리가 조금이라도 섞이는 순간 원래의 진리는 더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속임수다. 성령님은 차지도 답지도 않은 미지근한 행태의 신앙에 대하여 가차 없이 거짓 신앙이라고 경고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아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계 3:15-16).

계속해서 〈스크루테이프〉의 말을 인용해 보자.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좋은 방법은 과학 서적 따위는 아예 읽지 못하게 하면서 ‘그런 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그럴듯하고 막연한 느

낌만 심어 주는 거지.”

악마는 사람들이 과학 서적 읽는 것을 왜 그렇게 꺼릴까? 과학의 방법론이 막연하거나 애매모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인과 결과의 상관성이 정확하게 하나의 공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과학과 신앙이 어울릴 수 없다는 편견과 말은 또 하나의 그릇된 언어이다. 역사 속 수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과학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17세기 독일의 위대한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우주의 모습에서 하늘이 하나님을 선포함을 보았다고 분명하게 선포했고, 프랑스의 위대한 과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장엄한 우주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죽음 이후의 안식을 노래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비성경적 세계관을 아주 매력적인 포장지로 감춘 각종 언어의 향연으로 넘실거린다.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라는 단어가 이미 동성애자들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이라는 말도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적 젊은이들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도록 힘쓰고 기도해야 할 현대 사회의 또 하나의 새로운 영역은 일상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언어의 영역이다.



신무환 장로
(서빙고공동체, 온누리
세계관학교 담당)

특별기고

정신건강에 변화를 가져오는 신앙

교회는 초기부터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사회적으로 ‘손떨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러한 성향은 고대 세계의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는 삶과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모방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전염병, 기근,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여러 문화와 세기에 걸쳐 기독교인들이 이를 따랐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현대 의료 시스템, 재난 구호 활동 및 기타 많은 자선 단체가 존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기독교적 이상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의료 서비스는 의학 학위와 배지를 가진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재난 구호는 비영리 단체와 정부 기관이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두 영역 모두에서 크리스천들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종교 뉴스

서비스(Religion News Service)’ 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 뉴욕 최대 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 성직자, 신앙 지도자 및 기타 비전문가가 불안과 우울증의 증상을 치료하고, 심지어 예방하는 데 전문가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이 네트워크는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환자를 위해 더 많은 성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 분야의 다른 최근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예를 들어 심리치료가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특히 정신건강에 최악의 상황을 겪는 세대인 Z세대 사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오늘날 젊은 성인의 40% 이상이 정신건강 문제로 진단받고 있으며, 이는 일반 인구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아베게일 슈리어는 새 저

서 〈나쁜 치료〉에서 심리치료는 유용할 수 있지만, “심리치료의 남용은 우리의 정상적인 회복 과정을 방해하여 정신이 제때 제 방식으로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는 건강에 해로운 고통에 대한 집착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영성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01년 메이요 클리닉 연구진은 “종교 참여와 영성은 불안, 우울증, 자살 감소 등 더 나은 성과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모든 형태의 영성과 종교가 정신건강에 똑같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화 된 종교가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Psychology Today〉의 한 기사에 따르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보다 통계적으로 불안과 우울증이 덜하고, 신경증적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

크리스천에게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심리적 트라우마’로 분류되는 것 대부분 사실 영적인 상처다. 사람들이 직면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관계의 단절, 궁극적으로 창조된 관계의 단절이다. 그 해답은 무엇보다 창조주와의 관계 회복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치유는 궁극적으로 밖으로 향하고 위를 향해야 한다. 오늘날 많은 현대 정신건강 관리받는 이들이 급진적인 내면으로의 전환은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상담과 약물치료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덜어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해야 한다(잠언 3:8)’.

/ 존 스톤트리트척(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자레드 헤이든(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졸업) *원문: breakpoint(20241125)

당신이 온누리입니다

“우리는 ‘따르는’ 선교사입니다!”

조문숙, 박승홍 모자(母子) 선교사의 ‘절대 순종’

놀라운 선교 열정을 지닌 사람들을 만났다. 반평생을 선교지에 교회 지으러 다니고, 모자가 2대째 선교를 이어가고, 남편을 선교지에서 천국으로 보냈는데, 그곳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달려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기 위해 오늘도 선교한다.

그 두 번째 주인공은 조문숙, 박승홍 선교사다. 이들은 모자(母子)지간이다. 18살에 온 아프리카 선교사의 꿈을 좇아 탄자니아로 날아간 엄마와 그곳에서 2대째 선교하는 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탄자니아에서 2대째 선교하는 조문숙(母), 박승홍(子) 선교사.

조문숙 선교사는 ‘하나님 기적의 딸’이다. 2022년 6월 천국 입구까지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난 사람이다. 조문숙 선교사는 탄자니아에서 교회 개척, 제자 양육, 마을 전도 등을 하면서 선교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뇌동맥류 출혈로 갑자기 쓰러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조문숙 선교사의 아들 박승홍 선교사가 대를 이어 탄자니아 선교사로 준비되고 있었다.

45년 만에 이룬 18세 소녀의 꿈

1973년, 18세 소녀였던 조문숙 선교사가 아프리카 아이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검은 태양’을 봤다. 한순간에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마음을 사로잡혔다. ‘내가 저 아이들의 엄마가 돼줘야겠다’고 다짐했다.

조문숙 선교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상경(上京)해 선교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다. 당장이라도 아프리카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그런데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던가.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고향인 대전으로 내려와야 했다. 그즈음 사랑이 찾아왔다.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만난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조문숙 선교사를 응원하고, 함께 선교지로 떠날 것을 약속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뤘다.

두 사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선교지로 떠날 수 없는 사정들이 폭풍처럼 들이쳤기 때문이다. 사업 실패와 IMF 사태 등으로 인해 가정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부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교 비전을 심어주는 일을 쉬지 않았다. 결혼 생활 20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2000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조문숙 선교사가 두 아들을 데리고 생업을 이어가야 했다. 그때 온누리교회를 만났다. 온누리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15년 동안 여러 사역에 뛰어 들었다. 교회 곳곳에서 섬기다가 ‘와이미션’ 등 선교 관련 사역에 발을 디뎠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품고만 있었던 선교사의 꿈이 다시 피어올랐다. 마침내 조문숙 선교사가 63세가 되던 해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갈렙 선교사(시니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18세 소녀가 꾸고 좇았던 꿈을 45년 만에 이뤘다.

엄마는 ‘선교의 교과서’

60세가 넘는 어머니가, 그것도 홀로 아프리카 선교를 간다고 하니 가족들의 반대가 당연히 있었다. 사실 조문숙 선교사의 두 아들은 어머니가 이제는 편히 쉬기를 바랐다. 그러나 오래 간직하던 어머니의 꿈을 꺾을 수는 없었다.

“이제 조금 안정된 시기를 누릴만 해졌는데 어미가 홀로 선교지로 떠난다고 하니가 아들이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별수 있나요?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 뜻을 따를 기회가 이제야 찾아왔는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탄자니아는 어린 시절 선교지로 꿈꿨던 곳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확신이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조문숙 선교사가 나이는 많았지만, 열정만큼은 청년 못지않았다. 그녀의 열정이 탄자니아에서 수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게 했다. 조문숙 선교사는 무슬림 마을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틈날 때마다 터미널이나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했다. 제자 양육에도 힘을 쏟았다. 그녀의 제자 중에서 신학생만 6명(졸업생 3명, 재학생 3명)이 나왔다. 어디 그뿐인가? 오지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주고, 주민들이 깨끗한 식수를 마시도록 우물도 파냈다.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교회도 개척했다. 그녀가 탄자니아에 머문 5년 6개월 동안 개척교회 3개, 협력교회 1개, 학교 1개, 우물 13곳을 만들었다. 주변 선교사들이 조문숙 선교사의 사역을 보면서 ‘20년 동안 사역해야 맺히는 열매’라고 칭찬할 정도였다. 마을 주민들은 조문숙 선교사를 엄마처럼 따랐다.

조문숙 선교사가 탄자니아에서 선교 열매를 맺는 동안 아들 박승홍 선교사는 홍콩온누리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다. 엄마의 선교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뿌듯하고, 존경심이 들었다. 늘 엄마의 사역을 마음으로 응원하며 중보기도했다. 그때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 직접 만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3년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두 사람이 만날 기회가 생겼다. 박승홍 선교사가 국내 사역과 목사 안수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때 조문숙 선교사를 만나러 탄자니아에 갔다. 2022년 1월이었다.

“어머니가 사역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선교의 교과서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지인과의 관계를 정말 잘 맺어두셨습니다. 어머니 곁에 머물면서 ‘어머니를 따라만 해도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의 꿈이 아들의 꿈으로!

3개월 비자를 끊고 탄자니아에 왔던 박승홍 선교사가 떠나야 하는 시간이 됐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탄자니아 키칼레교회 개척과 라마단(무슬림이 지켜야 할 5대 의무 중 하나에 속하는 달)이 겹쳐서 사역 일정에 조율이 필요했다. 박승홍 선교사는 키칼레교회 개척까지만 사역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비자를 연

장했다. 그런데 탄자니아에 머무는 날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얼굴이 눈에 밝히기 시작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이 박승홍 선교사의 마음에도 자리를 잡았다.

박승홍 선교사가 탄자니아 사역을 마치고 한 국으로 돌아가기 일주일 전 조문숙 선교사가 뇌동맥류 출혈로 갑자기 쓰러졌다. 재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병원 시설이 매우 열악한 탄자니아에서는 쉽지 않았다. 처음 방문했던 시골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옮겨지기가 지 19시간 동안이나 방치됐다. 뇌수술이 가능한 큰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에서 “지금 당장 두개골 절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상황이 위급했다. 문제는 탄자니아에 두개골 절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단 2명뿐이었다. 다행히 그중 한 명이 집도 하게 됐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또 있었다. 절제한 두개골을 보관하는 기술이 없어서 배를 갈라서 장기 안에 뼈를 보관해야 했다. 기막히고 두려운 일의 연속이었다. 박승홍 선교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가 2주가 고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선교사님과 성도님이 기도해주셨습니다.”

2주 뒤 조문숙 선교사의 손가락이 까딱 움직였다. 박승홍 선교사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다. 이후 40일 동안 탄자니아에서 힘겨운 재활을 하고, 에어엠 불런스(Air ambulance)로 한국에 왔다. 그리고 꼬박 11개월 동안 용변 연습, 앉고 눕는 연습 등 재활 치료를 받았다. 말로 하기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회복했다.

“뇌출혈이 오면 30%는 즉시 사망, 30%는 병원 이송 후 사망, 30%는 심각한 장애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하나님 은혜로 스스로 걷고, 눕고, 먹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문숙 선교사는 건강 문제로 다시 탄자니아로 가지 못하지만, 한국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하고 있다. 그녀의 아프리카 선교사의 꿈은 아들 박승홍 선교사가 이어받았다. 박승홍 선교사가 TIM(두란노국제선교회) 본부와 상의 끝에 탄자니아로 가기로 했다.

“소용돌이 같았던 일련의 사건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강력하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사역지였던 탄자니아 선교를 이어가는 게 부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맛있는 말씀 해설

“...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눅 15:8~10)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이야기마다 잃어버린 것과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잃어버린 것의 첫 번째는 양, 두 번째는 동전, 세 번째는 아들이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사람은 각각 목자, 여인, 아버지다. 잃어버린 것으로 나오는 양은 동물이고, 동전은 광물이며, 아들은 사람이다. 양은 동물이기에 움직일 수 있다. 눈과 귀가 있고 발이 있다. 그래서 양은 스스로 집에서 나온다. 그러나 집으로 다시 돌아갈 능력이 없다. 동전은 광물이라서 감각과 지능,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움직일 수 없다. 아들은 사람이다. 길을 잃지만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세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뜻한다. 선한 목자이신 성자 예수님, 자주 여인으로 비유가 되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세 가지 이야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양의 수는 100마리다.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이 길을 잃는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10개의 동전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린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다. 이야기에 나오는 잃어버린 대상의 범위가 점점 좁혀진다. 그리고 결국 나에게로 향한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성서 시대 여인들은 시집갈 때 친정아버지로부터 지참금을 받아왔다. 이는 신랑 가족의 소유이다. 그러나 친정어머니가 시집가는 여인에게 몰래 돈을 챙겨준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여인의 소유다. 따라서 두 번째 이야기 속 여인의 동전은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을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이 남편의 소유이고, 이 동전만 여인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종종 여인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에

게 고난이 있을 때, 남몰래 동전을 만지면서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여인이 어느 때와 같이 동전을 만지다가 떨어뜨린다.

고고학계에서는 발굴 중에 간혹 바닥에 박혀있는 동전들을 많이 발견한다. 집안에 동전이 많이 박힌 채로 수천 년 지났다는 것은 잃어버리면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은 그것을 찾기 위해 여러 행동을 한다. 첫째, 등불을 켜고 둘째, 빗자루로 쓸면서 셋째, 동전을 부지런히 찾는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한 여인의 노력은 양을 찾는 목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노력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

여인에게 잃어버린 동전은 귀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여기에 핵심이 있다. 이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준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과정에서도 같은 열심과 사랑을 보여주신다. 아무리 찾기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인이 마침내 동전을 찾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기쁘다고 말할 것이다(눅 15:9). 이는 하나님의 기쁨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눅 15:10).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말씀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가 돌아왔을 때 크게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응답할 차례이다.

/ 권용갑 목사 (인천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어린양의 심판과 사탄의 패망

온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

할머니를 위하여!

저희 할머니가 최근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입원하셨습니다. 상태가 점점 위중해지고 있어서 가족 모두가 큰 걱정 속에 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며 저희 곁을 지켜주신 분입니다. 현재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가족들을 걱정하고 계실 할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할머니를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셔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할머니를 간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족들이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매일 병실을 오가며 육체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족들의 영육 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서로 지지하고 사랑으로 할머니를 돌보도록 기도해주시시오.

또 이번 상황으로 재정적인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점점 쌓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머니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해주시시오. 가족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 익명의 성도

12월 9일~12월 15일
〈요한계시록〉 12:7~16:21



사도 요한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이 그 부하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긴 일을 말해 준다. 성도는 사탄의 존재를 두려워해서도, 무시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사탄과 맞서 싸우며 승리하도록 사탄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자.

▶사탄(큰 용, 옛 뱀, 마귀)은 온 천하를 미혹하고 성도를 참소하는 자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해 땅으로 내쫓긴 큰 용은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자손과 싸우고자 한다.

용의 하수인인 두 짐승이 등장한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어린양을 대적하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권세와 이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한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초자연적 기적을 행해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우상을 경배하게 만든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고, 또 짐승의 표(666)를 받게 한다. 666은 짐승과 짐승을 따

르는 자들의 총수를 상징한다.

묵상포인트 2: 용과 짐승의 승리는 잠깐이고, 최종 승리자는 어린양과 144,000명(이방인을 포함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전체)이다. 전사요, 심판자로 오시는 어린양과 그분의 심판에 대해 묵상하자.

▶요한은 144,000명이 어린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환상을 본다. 승리하신 어린양과 144,000명의 경배가 온 우주에 울려 퍼진다. 요한은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는 천사, 바벨론의 멸망을 알리는 천사,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는 천사를 본다. 성도의 삶에 핍박과 고난이 따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가 예리한 낫으로 땅의 곡식을 거두고, 성전에서 나온 다른 천사가 낫으로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 이는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나타낸다.

묵상포인트 3: 일곱 대접 심판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불신 세력이 완전히 패망(敗亡)당하는 마지막 심판이다. 일곱 대접 심판이 하늘 성전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묵상하자.

▶대접 재앙 전에 요한은 하늘의 표적을 본다. 승리한 하나님 백성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른다.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일곱

금대접을 받는다.

첫째 대접 심판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고, 둘째 대접 심판으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다. 셋째 대접 심판으로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고, 넷째 대접 심판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태워진다. 다섯째 대접 심판으로 짐승의 보좌가 강타당하고, 여섯째 대접 심판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고,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바벨론이 멸망당한다.

-적용을 위한 가이드

▶사탄은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패배한 존재다. 그가 영원히 멸망 당할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의 참소나 현혹을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대적하며 물리치자.

▶하나님과 어린양을 대적하는 거짓된 이단 혹은 잘못된 가치관을 성경적 기준으로 빠르게 분별하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 신앙에는 희색 지대가 없음을 기억하고 어떤 고난에도 예수님 편에 서기로 다짐하자.

▶마지막 심판 날에 사탄과 그를 따르는 불신자들은 준엄한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사랑받는 이들이 은혜의 때 곧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크리스천 부모의 역할

“사춘기 자녀와 잦은 갈등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사춘기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 방식으로 대처하려다 보니 갈등이 심화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필자는 일단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 놓으라’고 말하고 싶다. 부모의 관점에서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면 오히려 부모가 만지는 만큼 자녀가 망가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모는 자녀가 ‘행복저축통장’에 행복을 많이 채우도록 도와야 한다. 그 행복이 자녀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힘이 되기 때문이다. 갑자기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

축을 해 놓았다면 그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행복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행복했던 때를 떠올린다. 그 행복이 다시 돌아올 거라 믿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간다. 그러나 행복한 경험이 적은 사람은 어려움을 뚫고 나갈 힘이 없어서 늪에 빠져버린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행복저축통장’에 행복을 많이 채우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자녀의 실수를 안아주고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실수나 오타나는 것을 못 견딘다. 하지만 아이들은 충분히 실수를 경험해야 한다. 실수를 많이 해야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가 실수를 통해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자녀가 실수하더라도 “실수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고 격려해야 한다.

또한 사춘기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질풍노도의 시기이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사소통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녀에게 알맞은 격려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자녀는 부모의 격려와 응원을 통해 용기를 얻고, 더욱 강해질 수 있다. 그 자녀가 자라서 청년이 되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셋째, 꾸준히 자녀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한다.

자녀들이 사춘기와 청년기를 거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믿음의 기반이 자리잡혀 있지 않은 자녀는 세상의 물결에 요동치게 된다. 부모는 꾸준히 자녀에게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는 선명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줘야 한다.

그렇다고 사춘기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대신 자녀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그들이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갈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잘 성립 되어있는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받는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에게 느꼈던 것처럼 인자하고 따뜻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대화에서도 자녀들의 고민에 답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고민을 편

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사춘기와 청년기 자녀들이 겪는 혼란이 절대 작지 않다. 그들이 겪는 고뇌와 갈등을 부모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마음을 받아주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자녀가 조언을 구하면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냈다”면서 “우리는 더 잘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알려줘야 한다. 자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한다. 물론 자녀들이 세상의 물결에 흔들릴 때 부모의 이야기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꾸준한 기도와 사랑, 진리를 전하는 노력이 자녀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다시금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 경험이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강미향 목사
(가정사역공동체)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의 하나 됨

모범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를 추천하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이들이 가수 선 부부다. 선 부부의 삶은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 부부는 말로만 결혼 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옮긴다. 선 부부를 지켜보는 부부들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물론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과 발버둥 치는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비교하면서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결혼 생활의 본보기가 있으면 모든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게 틀림없다.

가수 선은 결혼의 목적을 ‘부부의 하나 됨’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둘로 나누지 못한다고 성경에 쓰여있습니다. 찰흙 두 덩어리에 힘을 가해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한 덩어리가 된 것에 다시 힘을 가하면 둘로 나뉘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둘이 하나 됨은 빨간색 물감과 파란색 물감을 섞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물감을 섞으면 완전히 새로운 색깔인 보라색이 됩니다. 그러나 한번 보라색이 되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더 이상 나눌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빨간색은 빨간색인 것을 부정하고 파란색을 받아들이야 합니다. 파란색은 파란색임을 부정하고 빨간색을 받아들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둘이 하나가 되어 보라색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수 선은 물감에 비유해서 부부의 하나 됨을 설명했다. 자신의 색깔을 고집하는 것은 부부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다. 자신이 파란색 이더라도 빨간색인 배우자와 결혼했다면 부부의 공통 색깔을 찾아야 한다. 계속 자신의 색을 고집한다면 행복한 부부관계가 흔들리게 된다. 사람은 의외로 고집이 센 경향이 있다. 물론 사람이 자기 중심성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사람은 자기 입장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짜증과 화를 내는 존재라고도 볼 수 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할수록 배우자의 다른 모습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부부의 하나 됨은 다양한 서로의 다른 점들을 수용해 가는 과정이다. 자신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품는 것이 부부의 하나 됨을 향해 가는 자세다. 이를 위해 자신과 부부의 삶에 적용해 볼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인내를 키우고, 부부관계에 적응해야 한다. 우리는 가까울수록 인내하지 못한다. 가까운 배우자에게 인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어린아이가 생떼를 부리는 것처럼, 막무가내로 화내고 싸움을 걸기도 한다. 사회적 관계나 교우 관계에서는 오래 참고 온유함을 옷 입고 타인을 대한다. 그러나 경계가 없는 부부

사이에서는 인내하기보다 성급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하나 됨을 이루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인내다.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기다려 줄 수 있는 마음의 용량을 키우는 게 좋다. 인내는 포기과 다른 의미다. 배우자를 인내하면 관계의 성숙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지만, 인내와 비슷한 옷을 입은 포기를 선택한다면 관계가 점점 더 단절될 것이다. 서로에 대한 포기가 아닌 인내로 기다려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거나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욕심, 배우자를 향한 과도한 요구를 버리라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 나온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생각해 보자. 떨기나무는 불타지 않았지만, 지지분하게 불어졌을 것이다. 자신의 고유함을 지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을 과감하게 내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셋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수많은 강의를 듣고,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했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결혼 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시점에 좌절과 낙심이라는 견고한 벽과 맞닥뜨리곤 한다. “나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더는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구나”라고 절절히 낙담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부부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부부는 결혼 생활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부부의 하나 됨이라는 결혼 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다.

넷째, 마음을 상하게 한 배우자를 다시 수용하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 부부의 하나 됨이 힘든 이유는 갈등을 겪던 배우자를 용서하고 수용해서 다시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공격하고 마음 아프게 한 배우자와 오해를 풀고 다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더 없이 필요한 과정이다. 사랑했지만 미운 사람, 자신을 미치도록 분노하게 했던 배우자를 다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부의 하나 됨을 이루는 과정이다.

부부는 둘이지만 하나 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이 과정에는 반드시 기도와 은혜가 필요하다. 부부의 하나 됨은 예수님과 늘 함께 가는 과정이다. 가수 선의 고백처럼, 배우자의 색깔을 수용하고 부부만의 색깔을 만들며 하나 되어야 한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 저자)

2024 명예권사, 권사, 안수집사 임직 소감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청지기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청지기 653명이 세워졌다. 지난 11월 30일(토) 오후 4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2024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권사 149명(명예권사 6명, 권사 143명), 안수집사 504명(남 170명, 여 334명)이 임직됐다. 엄정숙 명예권사(양천공동체), 나미경 권사(신용산공동체), 이승우 집사(송파B공동체), 배윤숙 집사(인천온누리교회)가 임직 소감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명예권사’라는 새 이름



엄정숙 권사
(양천공동체)

선교사 자녀들(MK, Missionary Kids)은 얼굴은 한국인이지만 그들의 문화는 선교지와 똑같아서 우리는 그들을 ‘초록 아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노랑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닌 초록색입니다. 그들은 청소년 시절 정체성 혼란을 크게 겪습니다. 저는 약 17년 동안 MK들의 왕업마 사역을 마치고 2017년 선교사 은퇴를 했습니다.

선교 비전이 분명한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면서 시간도 흐름에 따라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은 여전한데도 점차 속도가 느려지고, 나의 소속감과 정체성, 사명감이 점점 흐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예배에도 나가고, 여러 성경 공부에도 참석해봤지만, 내가 초록 아이가 된 것처럼 낯선 상황이 늘 혼란스럽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대일제자양육을 해보겠다는 전화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동반

자와 양육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계속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이제는 온누리교회의 한 지체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가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무슨 섬김을 할 수 있을지 기도로 아뢰고 있을 즈음 명예권사 제도가 있음을 알고 신청했습니다. 제가 명예권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과업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역부족하겠으나 온누리교회 명예권사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섬김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니까 저절로 새 힘과 용기가 났습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바톤(baton)을 새로 받고 앞을 향해 달려가려는 선수가 되어 마음을 정비하고, 임직 안수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주셔서 잘 달려갈 열정을 회복했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이제 선교사 호칭이 사라지고 온누리교회 ‘명예권사’라는 새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화목하게 세워가라”는 권면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온누리교회 명예권사로서 책무 수행에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나미경 권사
(신용산공동체)

2006년 안수집사 임직을 받고,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이후 공동체 리더십에 게 여러 차례 권사 직분을 받으라는 권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직 부족하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는 언제까지 섬김을 받는 자로 있으려고 하느냐”는 울림이 있었고, 떨리는 심정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임직대상자 교육에 참여하면서 권사 직분이 나의 자랑과 명예가 되지 않고, 더 낮은 자리에서 주위를 돌아보며 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새벽기도회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기상이 힘들고 피곤했지만,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말씀으로 은혜받고, 오랜 시간 마음을 짓누르던 자녀에 대한 기도제목이 응답받는 놀

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큐티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조원들과 나누고 삶에 적용하며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임직스쿨에서 교회와 가정,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특히 온누리교회의 비전과 5가지 영성을 배우면서 말씀 공동체와 성령 공동체를 통해 받은 은혜를 선교와 사회참여로 실천해야 한다는 임직자의 책임과 사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회 봉사도 많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러빙핸드와 주차봉사, 성찬 섬김 등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협력해 선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과 봉사를 통해 주신 새로운 비전은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훈련과정을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직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주신 직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배윤숙 집사
(인천온누리교회)

안수집사 임직을 권유받았을 때 고민이 되었지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임직 받아야만 할 수 있는 봉사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정말 섬기고 싶은데 임직받지 못해서 섬길 수 없다면 안타까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난해 제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나마 임직 과정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임직을 위해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가 아닌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이재훈 위임목사님의 책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를 읽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모든 일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고, 교회 각 처소에서 보이

지 않게 섬기는 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마음으로만 짧게 하고 넘기던 큐티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험을 했습니다.

임직 과정에서 온누리교회의 살아있는 비전과 목표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건강한 영성을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교회의 부르심에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께 하듯 신실하게 섬기며, 더 나아가 세계를 품고 땅끝까지 전도에 힘쓰는 온누리교회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가는 여러 사역에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일꾼으로 참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온누리교회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며, 각 공동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이승우 집사
(송파B공동체)

저는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무례했고, ‘내가 왜 죄인이냐?’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타로 나간 미팅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와 교제하며 저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고난이 밀려와 위로하고 싶었는데 위로가 되지 않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내에게 아무것도 아닌 모습을 보며 교만했던 저는 좌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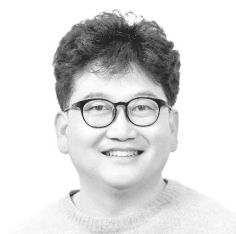
우연히故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 발로 교회에 갔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던 저에게 성경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통독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믿고 싶어 하는 저를 하나

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던지신 “네가 낫고 싶으냐?”는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믿고 싶으냐?”로 들렸고, “그게 믿음”이라며 예수님이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적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신앙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소속된 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변하지 않는 숨겨진 모습, 죄를 하나님께서 오래 다루셨습니다. 불의한 자를 막으려 싸우면서 분노로 힘든 나날을 보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목사님, 방장님과 대화하면서 그 짐을 벗어 던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대적자였던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안수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줘야 한다면 저는 목숨을 걸고 싸우며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그 사랑 앞에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섬교회 나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세상의 모진 바람에 원망만 품고, 누구에게도 의탁할 곳 없는 삶을 한탄하며, 세상의 끝자락에서 부서지는 높은 파도에 못난 몸뚱이를 던지고 자 할 때 강하면 서도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을 내밀어 기어이 붙잡아 다시금 생명의 길을 가도록 돕는 이가 있다. 마라도교회, 그리고 방다락 목사의 이야기다.

마라도는 제주도에서도 가장 아래, 남쪽 송악산 포구에서 배를 타고 20~30여 분 더 내려가야 만나는 대한민국 최남단 섬이다. 섬 전체가 품고 있는 아름다운 경치와 다양한 해상생물은 물론이고, 보호 가치가 있는 해양생태계 등이 있기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제423호). 아름다움뿐이겠는가? 방송과 SNS발 유명세가 더해져 매일 왕복 7회 운항편 전체가 매진될 만큼 사람들의 발걸음을 유혹하는 섬이다.

마라도 선착장에서 내려 높은 계단을 오르 고, 생경한 짜장면집을 비롯한 다양한 가게 들을 통과하면 확 트인 시야에 예쁜 마라도

분교가 들어온다. 그리고 맞은편 언덕에 우뚝 솟은 십자가가 보인다. 성도로서 십자가가 반갑기는 하지만, ‘반나절이면 충분히 돌아볼 이 작은 섬, 관광객 말고 얼마만큼의 사람이 살기에 교회가 있을까? 관광객을 위한 시설일까?’라는 생각이 든다. 호기심에 언덕을 올라 교회에 들어가 보면 강단과 표어, 장의지와 성경책 등이 있는 영락없는 교회다.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닌 게 분명하다. 섬사람들이 예배드리 는 교회임이 확실해 지자 또 호기심이 든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까? 성도는 얼마나 있을까?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할까?’ 등 호기심이 비죽비죽 솟아 오른다. 궁금함은 생각한다고, 막상한다고 풀리는 게 아닌 법이다. 잠시나마 마라도교회를 알아보자.

제주도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한 청년이 오른손만 움직일 수 있을 때 붙잡은 게 성경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청년 방다락은 병상에서 일어나 ‘땅끝’을 향한 마음을 품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 신학교 졸업반이었던 1984년 12월 24일, 몇 번 의 시도 끝에 만난 땅끝, 마라도에 왔다. 당시 마라도는 어느 섬마을보다 작은 규모이고, 19가구밖에 살지 않는 배타적인 공간이었다.

외지인을 경계하며 따돌리고, 모욕하며 무시했다. 그뿐인가? 미신이 강한 곳이었다. 토지와 생사를 주관하는 당신(堂神)을 모시는 본향당(현재 할망당, 처녀당, 아기엄개당으로 불림)이 있고, 그곳을 의지하며 안녕을 기원하는 게 마라도의 일상이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좇아 찾아온 곳이었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고, 반겨주는 이가 전혀 없었다.

어느 날, 임종을 앞둔 노인 집에 전도하러 갔다가 큰 수모를 당했다. ‘왜 죽어가는 사람을 모욕하느냐’는 소리를 듣고 쫓겨났다. 하지만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외침을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을 쫓아내는 이가 없을 잠깐의 때 임종 직전 노인에게 ‘죽음을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며, 안수기도를 했다. 마라도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며칠 뒤 모두가 죽을 것으로 예상했던 노인이 병상에서 일어나 생기를 찾고 다시 일터로 나갔다. 그 이후 방다락 전도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마라도에서 어엿한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

20가구 남짓 동네에 주변 도로가 막혀 사람들의 진입이 어렵고 더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이라면 과연 무슨 사역을 얼마나

펼칠 수 있을까? 천천히 걸으면 1~2시간 안에 마라도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데 그곳의 주민들을 돌보는 게 사역의 끝일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분명 그럴겠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사역을 위해 방다락 목사를 마라도로 부르셨다. 관광객이 되어 사람들의 왕래로 섬 전체가 북적거리기 전에 마라도는 삶의 풍파에 몸과 마음이 상하고, 더는 살아갈 의지가 꺾인 이들이 삶을 정리하고자 찾는 장소였다. 인생의 끝, 마지막 자리라고 여긴 곳이였다. 하나님은 그곳에 특별한 사자(使者), 방다락 목사를 예비하셔서 그들의 끝자락에서 예수가 보여준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어머니 같은 손길로 붙잡고 일으키셨다. 방다락 목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사자의 삶으로 쓰임 받았다. 그렇게 사람을 살린 사자가 수백여 명이라면 사자로서 충분히 역할을 감당하고, 받은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을 이뤄낸 것 아닐까?

즐거움으로, 몸과 마음을 쉬러 찾은 마라도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내가능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기대해볼 수 있다. 새로운 각오와 꿈을 꾸는 것도 좋겠다. 방다락 목사의 아들이 시작한 원조 마라도해물짜장면을 먹으면서 말이다.

두란노 신간

문화로 세상에 침투하기

〈소셜미디어 사역을 부탁해〉
황예찬 저 | 두란노 | 1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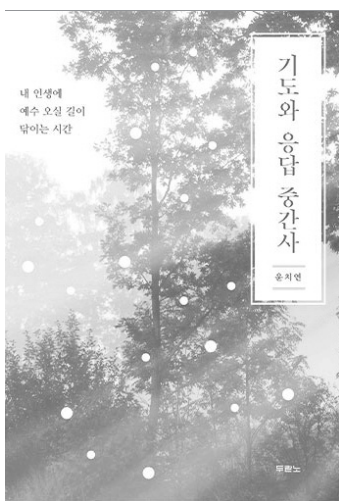
언서로 사역할 계획이 있는 성도들을 위한 책이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영향력을 얻고, 그 영향력을 선한 곳에 쓰려는 성도들을 위한 책이다. 실제 소셜미디어를 오래 운영해 온 저자가 얻은 기술과 경험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실용적이면서 교회가 다가올 세대들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방식들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크리스천에게는 영향력이 필요하다. 세상으로 흘러갈 영향력, 즉 세상의 문화 매체들과 경쟁해서 그들을 압도할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소셜미디어 사역을 부탁해〉의 작가 황예찬 대표는 “사람들은 자신을 즐겁게 해주고, 감동을 준다면 그것이 교회든 기업 이든 가리지 않고 좋아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우리는 가까이 문화적인 방법으로 침투해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셜미디어 사역을 부탁해〉는 교회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고 싶거나 기독교 인플루

그 시간 속 하나님

〈기도와 응답 중간사〉
윤치연 저 | 두란노 | 16,000원

길을 닦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윤치연 목사는 〈기도와 응답 중간사〉에서 기도와 응답의 중간 시기를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가족의 구원과 건강, 자녀의 취업과 결혼 등 모든 사람에게 는 기도제목이 있다. 그런데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다. 이생의 자량과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닌데도 말이다. 하나님 마음에 속 들만한 기도제목임에도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곡소리가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고 계셨다. 기도와 응답 사이도 마찬가지다. 응답을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오실 예수의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

오늘부터 탄소 중립!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계획하는 시간이다. 가족과 함께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청소년 환경 도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탄소중립〉을 온 가족이 함께 읽으며 2025년에는 ‘환경 청지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자.

책 〈오늘부터 시작하는 탄소중립〉은 7장에 걸쳐 환경 관련 주제들을 다루고, 탄소배출과 기후위기가 우리 일상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려주면서 실천 의지를 독운다. ‘뜨거워지는 지구, 변화하는 기후’, ‘더욱 빠르게 지구를 녹이는 패스트 패션’, ‘먹는 것은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자동차, 비행기와 거리를 둘 때’, ‘건물이 달라져야 지구를 살릴 수 있어요’, ‘경제활동과 탄소중립, 함께 갈 수 있을까?’, ‘지구의 한계 안에서 함께 사는 삶’ 등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위기 시대, 무엇을 입고, 먹고, 탈지 그 답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탄소중립〉에서 찾을 수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을 미뤄서는 안 된다. 오늘부터 실천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회복하자.



사진은 지난해 열린 '2023 온누리교회-한반도평화연구원 특별공동포럼'.

“한국교회와 탈북민, 어떻게 동행할까?”

온누리교회-한반도평화연구원 특별공동포럼

온누리교회와 한반도평화연구원 이 오는 12월 16일(월) 오후 7시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에서 특별공동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교회와 탈북민, 어떻게 동행할까?’를 주제로 온라인(유튜브)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현장 참가자에게는 행사자료집과 연구자료, 굿즈를 준다. 온라인 참가자들에게는 자료집을 우편으로 보내준다. 참가신청은 하단 QR코드를 하면 된다. 한반도 통일과 선교

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번 특별공동포럼에서는 교회의 탈북민 사역 30년 역사를 성찰하면서 교회에 제기된 도전과제들을 짚고, 이를 통해 탈북민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조동준 원장(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개회사, 이재훈 위임목사 환영사, 노치형 목사(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담당) 대표기도, 발표 및 토론(이태환 장로 사회, 김의혁 교수 발표, 구해미 목사 발표, 전명희 교수, 하광민 목사, 정형신 목사, 허은성 목사, 정기삼 팀장 토론, 김해기 장로(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위원장) 폐회사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의: 010-5792-3290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서빙고 전도콜센터 안내데스크 운영

서빙고 전도콜센터에서 ‘전도 상담 부스’를 열었다. 매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홍보관 앞에서 운영한다. 전도 상담을 받고 싶거나 전도 요청을 원하는 성도들은 전도 상담 부스로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전도콜센터는 전도 방법을 모르거나 전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대신해 훈련된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팀이다.

문의: 02-3215-3377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 모집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독일편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5년 1월 25일(토)부터 2월 4일(화)까지 ‘루터의 생애’를 주제로 독일 일정을 일주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전화(010-4902-1022)로 신청하면 된다.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에서는 매일 아침 1시간 30분씩 교회와 세계사를 공부하고, 현장 답사를 한다.

문의: 010-4902-1022

뮤지컬 〈바울과 나〉 감상문 대회

12월 10일까지 A4 한 장 분량

기독교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 감상문 대회를 개최한다. 12월 10일(화)까지 A4 한 장 분량 감상문을 글자 크기 10pt로 작성해서 이메일(wisdom7@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당선자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주고, 당선작은 12월 15일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관심이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 박지혜 기자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

하나원 수료생 맞춤전도집회 결신 11명

한누리 하나원 수료생 맞춤전도집회 ‘The 만남’에서 탈북민 11명이 예수를 만났다.

지난 11월 30일(토)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에서 한누리 하나원 수료생 맞춤전도집회 ‘The 만남’이 열렸다. 가수 이무송 집사의 공연, 탈북 여성의 삶을 다룬 샌드 애니메이션 상영, 토크쇼(구해미 목사, 탈북민 정유나 자매, 박대현 형제), 이기훈 목사 메시지, 결신의 시간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탈북민, 탈북민 자녀, 봉사자, 하나교회 목회

자, 사회선교본부 봉사자, 대학청년 봉사자, 한누리팀 장로 등 87명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탈북민 38명과 탈북민 자녀 6명 중에서 11명이 결신했고, 온누리교회 목사 심방 요청 11건, 성도와의 교제 요청 16건, 지역 교회 연결 요청 13건 등의 열매도 있었다.

한누리 하나원 수료생 맞춤전도집회 ‘The 만남’은 사회선교본부 한누리팀, 전도사역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 홍하영 기자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Christmas For You!

12월 18일 ‘2024 여성성탄예배’

2024 여성성탄예배를 12월 18일(수) 오전 10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Christmas For You’를 주제로 드린다.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여성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

다. 이날 예배에서는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사랑챔버, 이광재 목사, The blessing chamber, Woman2Woman이 특순한다.

문의: 02-3215-3201

12월 화요성령집회 ‘LOVE LETTER’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12월 화요성령집회가 ‘LOVE LETTER’를 주제로 막 오른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대

학청년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12월 10일 이서진 목사, 17일 최성민 목사, 24일 권오중 집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글로벌 아우라 챔버’ 송년 연주회

지난 11월 29일 서초구청 대강당

‘글로벌 아우라 챔버’ 송년 연주회가 지난 11월 29일(금)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글로벌 아우라 챔버’는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서초구가족센터 소속 8개국, 20명의 다문화 아동으로 구성된 오케스

트라다.

‘글로벌 아우라 챔버’ 단원들을 위한 악기 후원도 받는다. 단원들이 성장하면서 체격에 맞지 않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후원 문의: 070-7477-2404



온누리선교재단, 김치 나눔 축제!

이웃 64명에게 김장 김치 250포기 전달

온누리선교재단 제5회 김치 나눔 축제가 지난 12월 2일(월) 양재온누리교회 한식당에서 열렸다. 온누리선교재단 직원 35명이 참여했다. 이날 온누리선교재단 직원들은 양재 한식당 직원들이 정성껏 만든 김치소와 농촌미자립교회에서 구매한 배추로 김장 김치 약 250포기를 담갔다. 이날 담근 김장 김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64명에게 전달했다.

정남규 부장(양재관리부)은 “정성껏 담근 김장 김치가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계속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창조신앙아카데미 소감



/ 나헤림 성도(인천온누리교회)

완벽하고, 창의적인
창조 섭리

나는 두 아이 엄마다. 우리 부부는 성경을 진리라고 믿고 아이들을 양육했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신화로 치부되는 현실에서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부모인 우리가 더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내년 2월 아이들과 미국 서부지역 창조과학탐사를 가기로 했고,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창조신앙아카데미를 신청했다.

창조신앙아카데미를 통한 유익이 정말 많았다. 우선 노아의 홍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노아의 홍수는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면서 시작된 전지구적 대홍수로 높은 산들이 모두 물에 잠기고, 육지에 있던 모든 생물이 쓸어버림을 당하여 방주에 탔던 8명의 사람과 동물들만 살아남은 사건이다. 나는 스스로 신앙만큼은 보수적 근본주의자로 자부하는데, 당연히 전지구적인 노아의 홍수도 의심없이 믿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적지층들과 침식 지형들이 오랜 기간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니 부끄러웠다.

또한 내가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의 모든 환경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나는 운석에 맞을까 걱정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처럼 미세

하게 중력 상숫값을 조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산소의 농도에도 감사하고, 물의 존재에도 감사하고, 내가 살 수 있는 알맞은 지구 크기에도 감사하다. 내가 마음 놓고 살았던 이 모든 환경은 위대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신진화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도 좋았다. 개인적으로 진화론과 기독교 신앙이 양립할 수 있다고 말하는 유신진화론에 비해 오직 창조론만 진리라고 믿는 내 신앙이 무엇인가 비과학적인 것처럼 느껴지곤 했다. 그런데 이번 강의를 듣고 유신진화론은 그저 진화론임을 깨닫게 되었다. 오히려 진화론에 ‘유신’을 붙여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기존 진화론자들보다 교묘하고 비겁하게 느껴졌다.

내가 강의를 들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된 아이도 어깨너머로 수강했다. 지난 몇 주 동안 아이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참 많은 대화를 나눴다. 아이와 나는 가장 완벽하고 창의적인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감사했다. 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창조과학을 연구하고 강의하시는 분들, 그 좁은 문으로 가시는 모든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

다락방 영성훈련 간증



/ 우정완 성도(양천공동체)

성령세례를 기다린다!

불교와 유교가 뒤섞인 가정에서 성장한 나는 마흔이 넘어 <오두막>이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 그날 이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혼자 교회를 찾아봤는데, 섣뽕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온누리교회를 알게 됐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 배정받은 순이 양천공동체 마리아6순이었다.

순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생활은 세상 모임과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중심이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배웠다. 순원들과 함께 양육 프로그램들을 이수하며 성경도 조금씩 알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싶었던 많은 내용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은 큰 기쁨이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수록, 깊이 묵상할수록 내 안의 문제들이 선명해지는 것은 큰 딜레마였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다.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렇다면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애통해하고,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 애를 써야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그들을 향한 담대함도 없

고, 능력도 없었다. 이런 내 모습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힘들어서 순식구들에게 상담한 적도 있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세례였다. 영혼 구원에 절실함이 없다는 나의 고민은 마리아다락방의 영성훈련에서 답을 얻게 되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괴로워했던 마음이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제자들도 성령세례 이전에는 능력도, 확신도, 담대함도 없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세례 이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큰 위안이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상태이지만, 아직 열두 제자에게 임했던 것처럼 성령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지 모순적인 상태는 아닌 것이다. 성령세례는 어떤 성취에 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선물이고, 구하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세례 주실 것을 믿는다. 성령세례를 받음으로 확신에 찬 능력 있는 성도로 변화되어서 아직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일반어머니학교 참가자 간증



/ 유보람 성도(물샘교회)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섬기는 교회 사모님이 ‘일반어머니학교’를 소개하셨다. ‘어머니학교’라는 단어에 이끌려 앞뒤 생각 없이 수강을 신청했다. 어머니는 요즘 나의 가장 큰 고민이자 마음의 무거운 짐이었다. 친정어머니와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었고, ‘나는 딸에게 진정한 엄마인가?’, ‘앞으로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힘들어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변화할 미래를 기대하며 아무 거리낌 없이 시작한 일반어머니학교 첫째 주에 ‘나의 라이프 스토리’, ‘아버지께 편지 쓰기’를 하는데 막막함과 어려움이 나를 덮쳤다. 도망치고 싶었다. 이제껏 살면서 나 자신과 나의 과거를 이리도 살살이 돌아보며 파헤친 적이 있었는가?

나는 늘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고 허전한 느낌이 들었는데, 일반어머니학교 첫째 날 수업에서 가슴이 뻥 뚫린 아이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봤다. 한없이 흐르는 눈물의 이유를 찾으려는 그날 내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애니메이션 속 아이가 구멍을 채우려고 휴지를 막 구겨 넣었는데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겹쳐 보였

다. 정말 슬프고 안타까웠다. 아이는 휴지를 구겨 넣어도 구멍을 못 채우자 결국 가시가 덮인 망토를 뒤집어쓰고 쭈그러 앉았다. 그 아이의 모습이 현실의 내 모습과 똑 닮아 있었다. 일반어머니학교는 5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영상 하나만으로도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숙제를 하면서 달라지는 가족들의 반응이 신기하기도 하고, 열떨떨하기도 했다.

일반어머니학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고 있음을 느끼던 내 삶에 큰 깨달음을 줬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일반어머니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매일 외친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를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고 살 것이다. 중간중간에 회피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나에게 기도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신 홍미영 사모님과 나의 영적 자매인 혜현이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또 부족한 내가 진정한 어머니가 될 수 있게 해준 사랑하는 남편 김태현과 소중한 딸 민채에게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보낸다.

전도학교 아웃리치



/ 정덕 성도(한강공동체)

다음세대 하나님의
군사 찾기 프로젝트

온누리 전도학교가 ‘다음세대 하나님의 군사 찾기 프로젝트’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19명이 참여한 이번 온누리 전도학교 아웃리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준비해 놓으셨다.

첫째 날, 작은 시골 초등학교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역이 힘들 거라는 어려운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르게 곳곳마다, 순간순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 팀원들은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목시 기뻐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했다고 증언했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둘째 날에는 복음 전도를 위해 감악산에 올랐다. 관광객과 달리 우리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이곳에 왔다는 사실에 만감이 교차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것처럼, <최고의 행복 전도지>를 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광경을 볼 때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산청의 한 경로당에서 권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귀

담아들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시장에서의 노방전도는 복음의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셋째 날, 역세 축제장에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거부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등산 가방에 전도지를 넣어주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킬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고전 1:21)”라고 말씀하고 있다.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 복음 전도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동역자요, 성령 충만한 전도 사명자로 사용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이번 귀한 전도 여행에서 119명에게 복음을 제시했고, 74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열매가 있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서초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해외 온누리교회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철 목사 1-212-427-206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کل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6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중동 • 아부다비 김도관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일본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motocho 1-4(1F&2F),ukyo-ku, Kyoto-si			

섬기는 분들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임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지영 김상규 김선재 김성국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명배 김오성 김용민 김용산 김유식 김은혜 김재식 김재승 김정호 김준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광 김태용 김태완 김찬국 김현식 김홍주 노규석 노지현 노혜태 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진 박준영 박태영 박형준 배형삼 배성우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 송동주 송재호 안사뮈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오현교 유진아 유현록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상욱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아우람 이윤재 이진기 이찬우 이호준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의 전 진 전재표 정동윤 정성훈 정성진 정승철 정연상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훈 조바울 조현수 진선미 최대환 최상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충희 하원희 황진연 ■전도사(전임)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대중 신주용 송예찬 안대진 유성하 이형복 임동현 장지훈 조은광 주하늘 황유일 ■부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호호영 황종연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국내파견 목사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철 목사 1-212-427-206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کل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6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중동 • 아부다비 김도관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일본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motocho 1-4(1F&2F),ukyo-ku, Kyoto-si			

결혼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들 이재주, 강영의의 아들 이희기(요료교회) 김정진, 선우미선의 딸 김혜민(온누리교회)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2:00 양재 사랑들 이봉길, 김경아의 아들 이현우(온누리교회) 최인진, 박선영의 딸 최은영(캠브리지한인교회)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2-3215-3413)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봉사자 자격: 경로식당 배식봉사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 복지관 지정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타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14시~17시),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움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운 외상 어르신) 내용: 이미움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움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양지온누리교회 부근)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재정			
온누리교회협의의 현금 메뉴에서 모바일현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사용하세요. 현금온라인 안내 입금주현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입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갑사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02-793-2997, 010-4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소천·광고			
■ 소천 11/29(금) 양재A 장경란 성도 모친상 고 조속임 11/30(토) 강남B 이상희 권사 모친상 고 남귀남 12/1(일) 강남B 김윤숙 성도 시모상 고 김의리 12/1(일) 하모니 이영민 성도 모친상 고 권수희 12/1(일) 강남A 김진우 성도 부친상 고 김창규 12/1(일) 가정사역 김영성 성도 부친상, 김진희 성도 시부상 고 김제훈 12/2(월) 마포 김경섭 집사 모친상 고 이경숙 12/3(화) 하모니 윤영준 성도 부친상 고 윤지호 12/4(수) 경기A 최진화 집사 부친상 고 최기성 12/5(목) 서초A 이광운 집사 모친상 고 안옥선 12/5(목) 동작 강영호 집사 모친상, 김태관 권사 시모상 고 원인희 12/5(목) 서빙고 송혜경 권사 모친상, 김현규 집사 빙모상 고 김정재 ■ 광고 서빙고 의료데스크 의료진 모집 분야: 의사, 약사, 간호사 시간: 주일 9시~14시(한 달에 한 번 로테이션) 문의: 김정숙 권사(010-3753-0175)			

du plus

연말에 딱 한번!

두플러스

구독 할인 꿀 TIP 1탄

최대 35%

다가오는 새해, 꼭 이루고 싶은 신앙 루틴이 있나요?
크리스천의 신앙 목표는 두플러스로 준비하세요.

가격은 **저렴**하게, 혜택은 **플러스**!



이벤트 기간 2024. 11. 10 ~ 2024. 12. 30

구독 종류 비정기 1년 이용권

구분	프리미엄 플랜	도서 플랜
개인 구독	정가 ~~300,000원~~ 30% 210,000원 ⊕ 2개월 더!	—
5인 이상 단체 구독	1인 35% 195,000원 ⊕ 2개월 더!	1인 정가 ~~118,000원~~ 35% 89,000원 ⊕ 2개월 더!

※ 위 이벤트는 프리미엄/도서 플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 구독은 5인 이상만 신청 가능하며, 1인에 해당되는 가격입니다.

신청 방법

(택일)

① QR 코드를 통한 신청서 작성/제출

② 두플러스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결제

문의 ☎ 02.2078.3234 TALK 카카오톡(@두플러스)



신청서 작성

두플러스2.0

새로워진 두플러스를 지금 만나보세요!

홈페이지 www.du.plus

모바일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